

## 십대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비신고위험군, 비신고일반군의 자녀, 부모, 가족 특성 비교\*

### Comparisons of Child, Parental, and Familial Features among Child-Maltreatment Reported, Non-Reported At-Risk, and Non-Reported Intact Teen Groups

김 현 수**	이 봉 주***	김 세 원	유 조 안	이 상 균	진 미 정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Kim, Hyun-Soo	Lee, Bong Joo	Kim, Sewon	Yoo, Joan P.	Lee, Sang-Gyun	Chin, Meejung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hild, parental, and familial features useful in differentiating among child-maltreatment reported, non-reported at-risk, and non-reported intact teen groups. To address this purpose, the study included health, academic achievement, inattentive/hyperactive behaviors, conduct problems, emotional symptoms, and self-esteem for child features, health, self-esteem, depression, and warm/accepting parenting attitudes for parental features, and parental employment, marital status, education, SES, familial relationships, and familial resources for familial features. Study participants were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0 to 18 along with their parents. Maltreatment-reported teens along with their abusive parents were recruited from Child Protection Agencies nationwide (42 teen-parent dyads). Community teens along with their parents were recruited from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as well as local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cent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areas. This community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intact group (91 teen-parent dyads) and the at-risk group (179 teen-parent dyads), based on scores of the child-reported abuse/neglect scale. Chi square tests and *F* tests show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all 16 child, parental, and familial variables investigated in the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parental status of not being in marriage, low SES, child inattentive/hyperactive behaviors, parental depression, and poor famili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risk of being in the maltreatment-reported group as compared to the intact group and that parental college education or upper, poor child health, and poor famili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risk of being in the at-risk group as compared to the intact group. In addition, parental status of not being in marriage, parental education below college, parental low self-esteem, and child's low academic achievement, conduct problems, and high self-esteem were found to increase the risk of being in the maltreatment-reported group as compared to the at-risk group. Through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which child, parental, and familial factors increase the risk for child maltreatment. Given the findings, we can derive practical tips regarding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 maltreatment.

주제어(Key words) :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 아동학대-신고된 십대(maltreatment-reported teens),  
 아동학대 고위험 십대(at-risk teens for child maltreatment),  
 자녀특성(child features), 부모특성(parental features), 가족특성(familial features)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과제고유번호: HI16C1419), 2017년도 아동심리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E-mail: khs1004@hanyang.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bongjlee@snu.ac.kr)

## I. 서론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래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예방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종합적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로 이어졌고 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사건 조사 체계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은 2001년 2,105건에서 2016년 18,700건으로 8.9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상당한 수의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내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고된 청소년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위험이 보고되고 있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 Evaluation, 2012). 유사하게 높은 비율이 국내 아동학대 현황 조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60% 정도에서 불안, 주의산만, 우울, 애착 어려움, 낮은 자아존중감은 물론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약물·흡연·음주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행동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고립감, 또래로부터의 거부 등 대인관계적 문제와(Bolger & Patterson, 2001; Elliott, Cunningham, Linder, Colangelo, & Gross, 2005; Kim & Cicchetti, 2004) 학교에서의 적응문제도(박영준, 성효정, 2014) 함께 나타나고 있어, 그 폐해가 실로 크다 하겠다. 문헌은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단기적 폐해뿐 아니라 장기적 폐해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Cook et al., 2005; Fergusson & Lynskey, 1997; Kim & Cicchetti, 2004; Sousa et al., 2011; Spinazzola et al., 2005).

아동학대가 야기하는 부정적 폐해는 아동학대의 조기 탐지와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생태학적 위험요인의 규명을 통한 피해 아동의 조기탐지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현기, 2005; Belsky, 1980).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십 수 년 간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몇몇 아동학대와 관련된 자녀, 부모, 가족, 환경적 위험 혹은 보호 요인들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건강 상태, 인지적 문제, 정서·행동적 문제,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신체적 문제 및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가족적 측면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원 간 응집력과 같은 요인들이 아동학대의 위험 혹은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혜영, 장화정, 2002; 박혜숙, 김보기, 2013;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이

현기, 2005;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조은정, 2014).

먼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자녀 변인으로는 자녀의 낮은 건강상태, 낮은 인지 발달 수준, 낮은 환경 적응력,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서·행동 문제가 있다. 이들은 부모의 자녀 양육을 힘들게 만드는, 즉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자녀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Garbarino(1977)는 아동학대를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주장하였다. Garbarino의 관점에 기초할 때, 자녀의 낮은 건강상태와 인지적 발달, 학교에서의 문제, 기타 자녀의 심리, 사회, 행동적 문제들은 부모 역할 수행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아동학대가 아동의 장애와 같은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강지영, 장화정, 김경희, 김미경, 2017; 박명숙, 2002), 또한 선행연구는 아동학대가 자녀의 문제행동, 낮은 인지적 능력,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노충래, 2002; 조은정, 2014). 보다 구체적으로, 박명숙(2002)은 장애아동 부모에게서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발견하였고 이 스트레스가 부모 간 아동학대적 태도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노충래(2002)는 피학대 아동의 언어발달지연과 문제행동 심각도가 이들이 받은 신체학대의 심각성을, 피학대 아동의 인지발달능력이 이들이 받은 방임의 심각성을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은정(2014)은 피학대 위험군 아동이 일반군 아동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동 특성과 더불어 부모 특성도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도 지적하였듯,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만들어 내는 주된 가정 내 변인일 수 있다(Garbarino, 1977). 따라서 부모의 가정 내 스트레스, 특히 양육 스트레스에 공헌하는 부모특성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문헌에서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geland et al.(Egeland, Breitenbutcher, Rosenberg, 1980)은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스트레스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들은 학대 부모의 스트레스가 어려운 생활 형편, 부모 자신의 우울 및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지지 체계의 부족으로부터 영향 받음을 확인하였다. 유사하게, 소속희(1986)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아동학대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시사되고 있는데, 김혜영과 장화정(2002)의 연구에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안선경 등(2012)은 가족영역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아동학대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록 각 변인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진 않았지만, 가족응집력,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긍정적 관계, 부부생활만족이 아동학대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낮은 부모학력, 부모실직, 부모 건강 문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낮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SES), 갈등적 가정 내 분위기나 부부관계 등의 부모 및 가족변인이 아동학대의 위험

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이들 변인 중 특히 가족응집력, 가정 내 분위기, 가족구성원 간 관계, 부모학력, 부모 실직, 가정의 SES는 가족 내 역동을 드러내 주는 지표이거나 보다 큰 사회적/환경적 맥락 속에서의 개별 가족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메타분석 결과가 시사하듯, 이들 가족관련 변인들도 전술한 자녀관련 혹은 부모관련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아동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자녀, 부모, 가족 특징은 모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촉발시키는 혹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양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의한 Garbarino(197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 영역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한 Belsky(1980)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비록 선행 연구들이 이들 자녀, 부모, 가족 특성의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발견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와 관련된 아동, 부모, 가족 특성을 기술하려는 시도나 학대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시도, 혹은 지역사회군을 대상으로 학대/방임 부모행동점수와 자녀, 부모, 가족 특성 간 관계를 검토한 시도를 통해 조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집단 중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반군과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험군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 집단과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판정된 집단 간 변별에 유용한 변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아동학대 임상군이나 지역사회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접근은 임상군, 위험군, 일반군을 함께 포함시켜 진행한 연구보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적 개입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일반군에서 위험군, 신고군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노력은 예방적 접근에 있어 보다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집단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막는 보다 특화된 예방적 개입의 설계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위험 혹은 보호 요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아동학대의 예방적 개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서 아동학대 문헌에서 학대와 관련있다고 논의되고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아동군과 위험아동군,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 피해가 보고된 집단 간 변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변인으로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문제증상(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자아존중감을, 부모변인으로 부모의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온정·수용적 양육태도를, 그리고 가족변인으로 부모의 취업상태, 혼인상태, 학력, SES, 가족관계, 가족자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의 집단 변별에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학대·방임 부모양육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위험군과 일반군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로 신체 및 정서 학대와 방임에 집중했는데, 이는 국내 아동학대 유형 중 성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분석과(전체 아동학대 피해 사례의 2.6%를 차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성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들과는 다소 다른 상관물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입각해서였다(김형모, 2002; 이상균 등, 2017; 이현기, 2005; Brown, Cohen, Johnson, & Salzinger,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동질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체 및 정서 학대와 방임만을 아동학대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방임 양육행동 측정에 있어 부모 자기보고를 사용하는 데서 제기되는 신뢰도, 타당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 보고를 통해 부모의 학대·방임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에 부모행동에 대한 보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만10세)~만18세 아동·청소년들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위험군, 일반군은 자녀, 부모, 가족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아동학대 피해 일반군 대비 신고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학대 피해 일반군 대비 위험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 대비 신고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초등학교 4학년(만10세)~만18세 아동·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주양육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된 초등학교 4학년~만18세 아동·청소년 및 그들의 학대 가해 부모였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학대로 판정된 지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 지역사회군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센터에 모집공고를 내어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아동학대피해 신고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집공고를 발송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의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연구 취지를 소개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모와 아동·청소년은 연구 참가의 대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받았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쌍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모 및 가족자원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부모보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기능과 관련한 자료는 자녀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312 부모-자녀 쌍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중 270개의 자료는 지역사회군으로부터, 42개의 자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피해군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부모의 연령 평균은 44.97세( $SD=4.87$ )이었

으며, 아동·청소년의 연령 평균은 14.56세( $SD=2.10$ )이었다. 참가부모 중 모는 285명(91.3%), 부는 27명(8.7%)이었다. 참가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43명(45.8%), 여아가 169명(54.2%)이었으며, 참가자녀의 발달단계로는 초등학생이 48명(15.4%), 중학생이 163명(52.4%), 고등학생이 100명(32.2%)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군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을 선정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준거를 통해 정의되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방임부모행동척도 총점 기준 하위 1/3을 제외한 경우(이상준, 2008; 조은정, 2014), 평균 기준 상위 50%(Voegler, 2000), 상위 1/3(Luthar, Cicche, & Becker, 2000), 상위 25%(이해리, 2007), 1 표준편차 위(+1  $SD$ ; 박현선, 1998; Luthar, 1991) 등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 정의 준거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방임척도의 모든 문항을 “1”(=“전혀 없었다”)로 평정한 경우와 7번 문항(“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을 “2”(=“1년에 1~2번 정도”)로 평정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을 “1”로 평정한 경우까지만 아동학대 비신고 ‘일반군’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는 아동학대 비신고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7번 문항은, 아동학대·방임부모행동척도의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서구 국가에서는 방임의 부모행동으로 높게 인지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일반에 의해 크게 방임의 부모행동이라 인지되지 않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현안나(2011)의 연구에서 이 문항은 다른 학대·방임 문항들과 비교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 의해 가장 높게 응답되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생 759명 중

35.1%가 이 문항에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일반 가정에서도 보일 수 있는 문항이라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7번 문항을 “2”로 평정한 응답자는 전체 312명 중 100명으로 32.1%에 해당하였고, 여기에 모든 문항을 “1”(=“전혀 없었다”)로 평정한 응답자 1.6%를 합하면 33.7%로 전체의 1/3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위험군으로 정의하는 것은 총점 기준 하위 1/3을 제외한 경우(이상준, 2008; 조은정, 2014)와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문항을 “1”로 평정하거나 7번 문항을 “2”로 평정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을 “1”로 평정한 경우를 일반군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신고군 중 위험군과 일반군을 분류하였다. 270개의 지역사회군 자료들 중 비신고 일반군에 속하는 자료는 91개(33.7%), 비신고 위험군에 속하는 자료는 179개(66.3%)였다.

## 2. 연구도구

###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에 참가한 부모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파악을 위해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인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 위험군 대 비신고 일반군 간 구분에 유의한 변인 확인을 위해 본 연구는 부모, 자녀, 및 가족 관련 요인들을 측정하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보고 척도에는 보고자 종류, 보고자 연령, 보고자 혼인상태, 보고자 학력, 보고자 취업상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묻는 6개의 문항을, 자녀보고 척도에는

자녀의 성별과 발달적 지위를 묻는 2개 문항을 포함시켰다. 특히 부모의 혼인상태, 학력, 취업 상태, SES는 아동학대 가족관련 위험 및 보호 요인의 파악을 위해 연구에 포함시켰다.

### 학대·방임 부모행동

학대·방임 부모행동은 본 연구팀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13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학대의 측정을 위해 가족내 학대와 폭력 측정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Conflict Tactics Scale(CTS; Straus, 2005)의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측정을 위해 아동학대국제상임위원회(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n Child Abuse, ISCCA)의 제시 기준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상담사업연구(1998)를 위해 개발한 척도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팀이 자체 제작한 문항들을 첨가하여 아동학대·방임 부모행동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학대·방임 부모행동척도는 보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부모행동을 자녀가 보고하도록 하는 자녀보고 형식을 취하였다. 자녀는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1(=전혀 없었다),

2(=1년에 1~2번 정도), 3(=2~3개월에 1~2번 정도), 4(=한달에 1~2번 정도), 5(=일주일에 1~2번 정도) 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된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13-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점수 범위는 13~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내 아동학대·방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학대·방임 부모행동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9였다.

앞서 연구 대상 및 절차에서도 소개하였듯, 본 연구는 아동학대·방임 부모행동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비신고된 지역사회군을 일반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즉, 모든 문항을 “1”(=“전혀 없었다”)로 평정하거나 7번 문항을 “2”로 평정하고 그 외의 문항을 “1”로 평정한 응답자까지를 일반군, 그리고 그 외의 경우를 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위험군 대 비신고일반군 간 아동학대·방임 부모행동척도 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자녀가 보고한 학대방임 부모행동점수는 신고군에서 가장 높았고, 위험군, 일반군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학대비신고 고위험군, 학대비신고 일반군 간 자녀보고 부모학대방임 점수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변인	집단	N	M	SD	F	사후검증(LSD)
	학대 피해 신고군 <sup>a</sup>	41	18.46	6.46		
학대방임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17.05	4.35	30.62***	a>b>c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13.49	.50		

\* $p < .05$ , \*\* $p < .01$ , \*\*\* $p < .001$  (two-way).

### 자녀와 부모의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 위험군 대 비신고 일반군 간 구분에 유용한 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녀의 건강상태와 부모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설문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자녀와 부모의 건강 상태는 해당 보고자에게 각각 “현재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와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로 질문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요구되며, 높은 점수는 높은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 연령 범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의 아동·청소년 버전을,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성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의 성인 버전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용에서의 5개 문항(9, 10, 11, 12, 13번 문항)과 성인용에서의 5개 문항(3, 5, 8, 9, 10번 문항)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보고된 아동·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0, 자기보고된 부모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자녀 학교 성적

자녀 학교 성적이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위험군 대 비신고일반군 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위험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녀의 학교 성적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전과목 학교 성적 평균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아동, 청소년은 1(=아주 못함), 2(=중간 이하), 3(=중간), 4(=중간 이상), 5(=아주 잘함) 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된다. 높은 점수는 학교 성적이 좋음을 의미한다.

### 자녀 문제행동: 부주의/과잉행동, 품행, 정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위험군 대 비신고일반군 간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특성이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포함시켰다. 연구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인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Goodman(1997)의 강점/난점 질문지 (Strengths &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를 활용하였다. SDQ는 4~16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리를 선별하기 위한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향행동(5문항), 부주의/과잉행동(5문항), 품행문제(5문항), 정서증상(5문항), 또래문제(5문항)의 5개 영역에서의 아동, 청소년 문제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0(=전혀 아니다), 1(=다소 그렇다), 2(=분명히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중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척도의 1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자기보고를 통해 이들 문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부주의/과잉행동에서의 2개 문항(21번,



25번)과 품행문제에서의 1개 문항(7번)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아동·청소년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주의/과잉행동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1, 품행문제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59, 정서증상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 부모의 우울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Depressio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 우울증의 1차 선별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주간 각 문항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1(=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이하)~4(=대부분 그렇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요구된다. 2개 문항(2번과 7번)은 역채점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ES-D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부모 온정·수용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의 부모 온정·수용 양육태도는 Schaefer(1965)의 양육행동 모형을 기반으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아동용 양육행동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보완한 부모양육태도 척도 중 온정·수용양육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온정·수용양육태도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를 측정한다. 각 항목은 1(=거의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온정·수

용적 양육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 자기보고된 온정·수용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가족관계와 가족자원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 변인인 가족관계와 가족자원은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의 가족관계와 가족자원관리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는 자녀보고를 활용하여, 가족자원은 부모보고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관계 척도는 가족구성원 간 긍정적 의사소통, 유대의식, 애정정서 등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자원관리 척도는 건설적인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혹은 가족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규범과 규칙, 환경,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두 척도 모두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관계에서의 높은 점수는 긍정적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족자원관리에서의 높은 점수는 적절한 가족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녀가 평정한 가족관계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5, 부모가 평정한 가족자원관리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2.0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

으로,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이하 신고군) 대 학대비신고 위험군(이하 위험군) 대 학대비신고 일반군(이하 일반군) 간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F-검증(결과변인이 양적변인인 경우)과 카이검증( $\chi^2$ ; 결과변인이 질적변인인 경우)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F값이 나온 경우, 유의한 점수 차이의 소재(locus)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LSD)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군 대 신고군, 일반군 대 위험군, 위험군 대 신고군의 구분에 유의한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전진투입방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비신고위험군, 비신고일반군 간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의 차이 검증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위험군, 일반군 간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 $\chi^2$ )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카이검증의 결과는 <표 2>에, F-검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집단은 부모의 혼인상태 대 비혼인상태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SES의 상, 중상, 중중, 중하, 하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전일제, 시간제, 비취

<표 2> 아동학대피해 신고군, 학대비신고 고위험군, 학대비신고 일반군 간 부모 혼인상태, 가정 SES, 부모 취업상태, 부모 최종학력에 대한 응답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변인	구분	학대피해신고군 (N=42)	학대비신고위험군 (N=179)	학대비신고일반군 (N=91)	$\chi^2$
혼인상태	혼인상태	23(54.8%)	176(98.3%)	86(94.5%)	83.29***
	비혼인상태	19(45.2%)	3(1.7%)	5(5.5%)	
SES	상	0(0.0%)	0(0.0%)	0(0.0%)	42.46***
	중상	2(4.9%)	19(10.6%)	11(12.2%)	
	중중	8(19.5%)	92(51.4%)	56(62.2%)	
	중하	20(48.8%)	58(32.4%)	21(23.3%)	
	하	11(26.8%)	10(5.6%)	2(2.2%)	
취업상태	전일제	10(24.4%)	83(46.4%)	50(54.9%)	11.28*
	시간제	8(19.5%)	25(14.0%)	8(8.8%)	
	비취업	23(56.1%)	71(39.7%)	33(36.3%)	
최종학력	대졸이상	9(21.4%)	141(78.8%)	56(61.5%)	68.96***
	고졸	22(52.4%)	37(20.7%)	29(31.9%)	
	중졸이하	11(26.2%)	1(0.6%)	6(6.6%)	

SES=socio-economical status; \* $p < .05$ , \*\* $p < .01$ , \*\*\* $p < .001$  (two-way).

〈표 3〉 아동학대피해 신고군, 학대비신고 고위험군, 학대비신고 일반군의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의 차이 비교 결과

변인	집단	N	M	SD	F	사후검증 (LSD)
자녀건강상태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4.07	.85	15.29***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4.09	.68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4.56	.62		
자녀학교성적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3.05	1.12	10.35***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3.68	1.07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3.90	.78		
자녀 부주의/과잉행동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3.90	2.25	11.62***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3.00	2.04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2.15	1.81		
자녀품행문제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2.68	1.46	7.00**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1.99	1.35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1.73	1.35		
자녀정서증상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3.22	2.79	4.67*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2.78	2.18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2.11	1.67		
자녀자아존중감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40.20	6.38	8.23***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39.54	6.43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42.78	5.76		
부모건강상태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2	2.76	.88	15.59***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3.37	.70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3.48	.66		
부모자아존중감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2	18.71	4.53	18.20***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21.13	3.65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22.84	3.39		
부모우울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21.24	7.66	21.65***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16.41	5.21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14.71	4.02		
부모 온정·수용양육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2	26.17	4.76	6.42**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27.42	3.62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28.78	4.69		
가족지원 (부모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2	28.90	9.14	16.73***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34.08	7.06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36.74	6.66		
가족관계 (자녀보고)	학대피해 신고군 <sup>a</sup>	41	36.39	10.41	18.95***	a<b<c
	학대비신고 위험군 <sup>b</sup>	179	39.27	8.04		
	학대비신고 일반군 <sup>c</sup>	91	44.42	6.07		

\* $p<.05$ , \*\* $p<.01$ , \*\*\* $p<.001$  (two-way).

업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대졸이상, 고졸, 중졸 이하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집단은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및 온정·수용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자원과 가족관계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점수 차이의 소재는 <표 3>의 사후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군과 일반군에서는 95% 이상이 혼인상태에 있었던 데 반해 신고군에서는 54.8%만이 혼인상태에 있었다. SES, 취업상태, 최종학력의 하위구분들에 대한 분포에 있어서도 위험군과 일반군은 유사한 분포양상을 나타낸 반면 신고군은 이 두 집단과는 다소 다른 분포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위험군과 일반군에서는 중중층, 전일제 취업상태, 대졸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신고군에서는 중하층, 비취업상태, 고졸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물론 중중층, 전일제 취업상태라 응답한 비율은 위험군에서보다 일반군에서 다소 더 높았고 대졸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은 일반군에서보다 위험군에서 다소 더 높았지만, 전반적인 응답 양상에서 위험군은 신고군보다는 일반군에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집단 간 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표 3>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가족자원관리와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자원, 가족관계와 같은

긍정적 변인에 있어서는 일반군이 가장 높게 그리고 위험군과 일반군 순으로,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과 부모의 우울 수준과 같은 부정적 변인에 있어서는 신고군이 가장 높게 그리고 위험군과 일반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군과 신고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인 경우와 일반군과 위험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신고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신고군과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자녀 건강상태, 자녀 자아존중감, 부모 온정·수용 양육태도를 나타내었고 유의하게 더 높은 자녀 정서증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일반군과 위험군은 신고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자녀 학교성적과 부모 건강상태를 나타내었고 유의하게 더 낮은 자녀 품행문제를 나타내었다.

## 2.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자녀, 부모, 가족 특성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높이는 변인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16개의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전진방법으로 투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비혼인상태, 자녀부주의/과잉행동, 부모우울은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신고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변인인 것으로, SES의 상승과 긍정적 가족관계는 신고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변인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혼인상

태와 비교해 비혼인상태에 있을 때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은 24.8배 높았고, 가정의 SES가 하층에서 중하, 하층에서 중중, 하층에서 중상으로 이동할 때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은 각각 76.9배, 142.9배, 13배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점수와 부모우울점수가 1단위씩 높아질수록 그리고 긍정적 가족관계점수가 1단위씩 낮아질수록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은 각각 1.9배, 1.3배, 1.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혼인상태, SES, 자녀부주의/과잉행동, 부모우울, 가족관계 변인들은 일반군 대비 신고군 변별에 있어 전체 변량의 54%(Cox-Snell  $R^2=.54$ )를 설명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 3.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자녀, 부모, 가족 특성

일반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아동학대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변인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16개의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전진방법으로 투입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군과 아동학대 위험군 간 비교에서 자녀의 취약한 건강상태는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인 것으로, 부모학력의 감소와 긍정적 가족관계는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낮추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에서 고졸, 대졸이상에서 중졸로 떨어질수록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

이 각각 47.6배, 1.7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건강상태가 1단위씩 나빠질수록, 그리고 가족관계점수가 1단위씩 낮아질수록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은 각각 2.4배와 1.1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이 일반군 대비 위험군 변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20%(Cox-Snell  $R^2=.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 대비 신고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자녀, 부모, 가족 특성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신고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변인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16개의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전진방법으로 투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도 역시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부모의 비혼인상태, 낮은 학력, 자녀의 품행문제,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위험군 대비 신고군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변인인 것으로, 자녀의 학교성적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위험군 대비 신고군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변인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비혼인상태와 고졸학력 및 중졸학력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대졸이상 학력과 비교해 신고군이 될 가능성을 각각 110.2배, 181.5배, 11.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학교성적과 부모 자아존중감 점수가 1단위씩 떨어질수록, 그리고 자녀 품행문제 점수와 자아존중감 점수가 1단위씩 높아질수록 위험군 대비 신고군이 될 가능성은 각각 2.8배, 1.2배, 1.5배, 1.2배씩

〈표 4〉 준거집단 대비 비교집단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신고군 vs. 일반군(준거집단) 비교				
변인	B	OR	99% CI	
부모비혼인상태(비혼인=1)	3.21**	24.78	(3.13,	196.16)
SES(중하=1)	-4.36*	.01	(.00,	.51)
SES(중중=2)	-4.92***	.01	(.00,	.11)
SES(중상=3)	-2.57*	.08	(.01,	.79)
자녀부주의/과잉행동	.63**	1.88	(1.21,	2.91)
부모우울	.24***	1.28	(1.12,	1.46)
긍정적가족관계	-.17***	.85	(.77,	.93)
Final Model Summary      -2LL = 55.94, Cox-Snell R <sup>2</sup> =.54, LR $\chi^2$ =97.31*** (5단계)				
위험군 vs. 일반군(준거집단) 비교				
변인	B	OR	99% CI	
부모학력(고졸=1)	-3.85**	.02	(.00,	.22)
부모학력(중졸이하=2)	-.55 <sup>+</sup>	.58	(.30,	1.09)
자녀취약한건강상태	.89**	2.44	(1.47,	4.04)
긍정적가족관계	-.08***	.92	(.88,	.96)
Final Model Summary      -2LL = 283.16, Cox-Snell R <sup>2</sup> =.20, LR $\chi^2$ =59.75*** (3단계)				
신고군 vs. 위험군(준거집단) 비교				
변인	B	OR	99% CI	
부모비혼인상태(비혼인=1)	4.70***	110.20	(14.05,	864.28)
부모학력(고졸=1)	5.20***	181.46	(10.17,	3238.81)
부모학력(중졸이하=2)	2.45***	11.64	(3.26,	41.49)
자녀학교성적	-1.03**	.36	(.19,	.69)
자녀품행문제	.43*	1.54	(1.03,	2.29)
자녀자아존중감	.20**	1.22	(1.08,	1.39)
부모자아존중감	-.22**	.81	(.69,	.94)
Final Model Summary      -2LL = 82.24, Cox-Snell R <sup>2</sup> =.41, LR $\chi^2$ =115.59*** (6단계)				

부모비혼인상태(혼인상태=0), SES=사회경제적지위(하=0), 부모취업상태(전일제취업=0), 부모학력(대졸이상=0); -2LL=-2 log likelihood. OR=odds ratio. LR=likelihood ratio; <sup>+</sup>p<.10, \*p<.05, \*\*p<.01, \*\*\*p<.001 (two-way).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의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돕는데 반해 십대 자녀에 있어서는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혼인 상태, 학력, 자아존중감, 자녀의 학교성적, 품행문제, 자아존중감이 위험군 대비 신고군 변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41%(Cox-Snell  $R^2=0.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비신고된 위험군, 및 학대위험이 없는 일반군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을 변별하는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포함된 총 16개의 자녀(건강상태, 학교성적,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자아존중감), 부모(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온정·수용양육태도), 가족(부모취업상태, 부모혼인상태, 부모학력, 가정의 SES, 가족관계, 가족자원) 특성들은 아동학대의 일반군, 위험군, 신고군 변별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chi^2$ 와  $F$  검정의 결과는 이들 16개 특성 각각이 집단 간 변별에 유의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함께 투입된 16개 변인들 중 일반군 대비 신고군, 일반군 대비 위험군, 그리고 위험군 대비 신고군 변별에 유용한 변인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비혼인상태, 가정의 낮은 SES,

자녀부주의/과잉행동, 부모우울, 긍정적 가족관계의 부족은 일반군 대비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대졸이상의 부모학력과 취약한 자녀건강상태, 긍정적 가족관계의 부족은 일반군 대비 위험군에 포함될 위험을, 그리고 부모의 비혼인상태, 고졸이나 중졸 학력, 및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낮은 학교성적, 높은 품행문제, 높은 자아존중감은 위험군 대비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부모의 비혼인 상태는 준거집단이 일반군이든 위험군이든 아동학대 신고군에 포함될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비혼인 상태는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준거집단 대비 작게는 25배, 크게는 110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로 신고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긍정적 가족관계는 일반군이 위험군 혹은 신고군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16개 각 변인이 아동학대 신고군, 위험군, 일반군 구분에 유용한 역할을 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e.g. 김혜영, 장화정, 2002; 박혜숙, 김보기, 2013; 안선경 등, 2012; 이현기, 2005; 장화정 등, 2000; 조은정, 2014; Brown et al., 1998). 이는 또한 최근 국내 아동학대 현황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서 보고된 국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가해부모, 가족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16개의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신고군과 위험군 예측에 유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는 자녀(부주의/과잉행동, 건강상태, 학교성적, 품행문제, 자아존중감), 부모(우울, 자아존중감), 가족 요인(혼인상태와 학력은 부모변인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족 관련 변인이기도 함, SES, 가족관계)이 함께 아동학대의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집단쌍이 비교되느냐에 따라 예측에 유의한 자녀, 부모, 가족 요인의 조합이 다소 다르긴 했으나, 세 집단쌍 비교 모두에서 자녀, 부모, 가족 요인은 함께 집단 구분에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아동학대를 개인내적 요인×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 가정한 Belsky(1980)의 생태학적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혼인상태, SES, 부모학력과 같은 가족 빈곤, 부모 스트레스, 부모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을 예측케 하는 가족변인들이 아동학대에 있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들은 가정의 빈곤상태, 부모의 스트레스나 직업유무가 다른 가족 혹은 부모 변인들보다 학대·방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가족영역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아동학대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안선경 등(2012)의 연구와 가정 빈곤이 아동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힌 김광혁과 김예성(2008)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이다. 특히 김광혁과 김예성은 가정 빈곤이 부모우울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학대·방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 하며, 이들 결과는 모두 재정적 혹은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야기된 부모 스트레스나 빈

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변인이 아동학대에 있어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대졸 이상의 부모학력은 본 연구에서 일반군이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발달하는 데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위험군에서 실제 아동학대 신고군으로 발달하는 데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라는 요인이 부모와 자녀에서 아동학대에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보여주었는데,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신고군이 될 위험을 낮췄던 반면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신고군이 될 위험을 높였다.

부모학력 수준의 일반군에서 위험군으로의 진행에서의 역할과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에서의 역할 간 차이는 아동학대에 있어 변인 간 상호작용(중재효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사료된다. 김광혁(2005)은 빈곤과 신체학대 간 유의한 관계가 저소득층에서만 관찰됨을 발견하였고, 또한 빈곤과 신체학대 간 관계가 남아의 경우 부모의 자녀 선호 여부에 따라 변동을 보인 반면 여아의 경우 부모의 자녀 선호 여부에 따라 변동을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부모학력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도 여러 변인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군에서 위험군, 그리고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로 판단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부모와 자녀에서 차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주목



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위험군이 신고군으로 전환될 경우에서만 유효하였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일관되게 자녀학대의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e.g., Brown et al., 1998),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녀학대의 원인보다는 결과로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e.g., 이정아, 2018; 현안나,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조명하지 못했던 자녀 자아존중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임상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물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 문헌에서의 예측과 일관되게(조은정, 2014), 위험군과 신고군보다 일반군에서 부모 및 자녀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 진행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현기(2005)는 부모의 학대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발견하였고, Pirooz(2015)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에서 높은 자기주장성이 보고됨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군에서 나타나는 자녀학대로 인해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고(이현기, 2005), 이 상황에 놓인 자녀들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는 낮은 자녀에 비해 학대적 부모행동의 부당함을 자기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Pirooz, 2015). 이는 학대적 부모의 공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학대 신고를 하도록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 물론 추후 연구를 통해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예방적 개입에 대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과는 일반 대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일차 예방(primary prevention) 프로그램의 구성과 아동학대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이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프로그램의 구성 모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군에서 위험군 혹은 신고군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위험요인 혹은 보호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요인의 감소 및 보호요인의 증가를 통한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위험군에서 실제 아동학대 신고군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집단은 누구이며 이들을 위한 이차적 예방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그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 하겠다.

물론 일부의 발견은, 예를 들면 비혼인상태, SES, 부모학력, 자녀 건강상태와 같은 요인은,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접근보다는 사회·정책적 변화를 통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변인은 앞서도 논의 하였던 사회지지체계의 확대나 기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부모스트레스 감소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 예방 프로그램 구성 시 긍정적 가족 관계, 가족 응집성,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치료적 접근으로 성취 가능한 것으로, 이런 목적의 가족치료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족 내 쟁점의 이해를

돕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방식의 직접적 변화를 유도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내 당면 문제의 해결과 긍정적 가족 조망을 가지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족치료적 접근(예, 단기해결중심 가족치료, 이야기 가족치료, 인지행동적 가족치료)도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후자의 접근은 단기 진행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활용이 더욱 제안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 및 이차 예방적 개입 모두에서 부모양육훈련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현황 보고에서도 시사된 바로, 학대행위자의 35.6%가 양육태도/양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학대행위자가 보이는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대부분의 부모양육 훈련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양육효능감 증가, 및 자녀 문제행동의 감소와 적응행동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azdin의 부모관리훈련(parent management training, PMT)은 역기능적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자녀의 친사회적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이나 품행 문제를 다루는데도 효과적이었다(Kazdin, 2005). 더욱이 PMT는 부모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aminski & Claussen, 2017; Kazdin, 2005) 예방적 부모양육훈련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학대 위험

군으로 탐지된 심대들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도 논의하였듯,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 위험군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심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안전 교육 혹은 자기방어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은 위험 상황(학대가 발생하려 하는 혹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략(예, 부모에게 맞대응하기 보다는 외부 도움망이나 지원망을 활용하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피해가 신고된 임상군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위험군 및 일반군으로부터의 자료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탐지와 예방에 관한 보다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이전 아동학대 연구 분야에서 시도가 부족했던 접근으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아동학대의 조기탐지와 예방 문제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 연구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를 유형별(예를 들면,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일반군, 위험군, 신고군 구분에 유용한 변인을 찾는 노력이 추후 연구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명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의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인 성학대를 조명하려는 노력도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학대 신고군과 이러한 위험이 낮은 일반군 간 구분에

유용한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찾는 노력은 아동학대 문제의 예방과 개입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부모학대/방임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녀 보고를 활용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부모행동의 보고가 가능한 십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조기 탐지와 개입의 목적을 위해서는 영아, 유아, 초기 아동과 같은 어린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탐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같은 목적의 연구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위험군 정의를 위해 아동학대·방임부모행동척도 총점 기준 하위 1/3을 제외한 경우라는 준거(물론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는 했지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미 연구방법 섹션에서도 소개한 바 있듯, 이 외에도 다양한 준거들이 문헌에서 위험군 정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e.g., 평균 기준 상위 50%, 상위 1/3, 상위 25%, 1 표준편차 위).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 위험군을 포함시켜 집단 간 구분에 유용한 변인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진행될 것이 제안된다.

넷째, 앞서 논의하였듯 선행 연구는 일부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e.g., 김광혁, 2005). 이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단순한 학대의 예언 변인 추출이 아닌 이들 변인 간 상호작용의 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도는 아동학대 현상의 보다 정확한 이해와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인들이 실제 아동학대 발생을 예측하는지 확인하는 중단설계의 연구나 아동학대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인가를 탐색하는 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영, 장화정, 김경희, 김미경 (2017). 가정 내 영유아학대사례의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 학령기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 **아동과 권리**, 21(2), 177-202.
- 김광혁 (2005). 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41-548.
- 김광혁, 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47-859.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모 (2002).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5, 31-52.
- 김혜영, 장화정 (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 권리연구**, 6(2), 269-286.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박명숙 (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1-24.
- 박혜숙, 김보기 (201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유형별 분석을 통한 조치방안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10(2), 287-311.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소숙희 (1986).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 이상균, 이봉주, 박지명, 김세원, 김현수, 유조안, 장화정, 진미정 (2017).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1-209.
- 이상준 (2008). 시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양육환경: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3), 49-68.
- 이정아 (2018). 청소년의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이혜리 (2007). 청소년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4(2), 125-136.
- 조은정 (2014). 피학대 위험군 아동의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피학대 위험군 아동과 일반군 아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9, 178-208.
- 현안나 (2011). 초등학생들의 아동학대 잠재적 집단 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교사회복지**, 21, 83-111.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 Bolger, K. E., &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 549-568.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Findings of a 17-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and Neglect*, 22, 1065-1078.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et al.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5), 390-398.
- Egeland, B., Breitenbucher, M. C., & Rosenberg, M. S. (1980). Prospective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life stres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195-205.
- Elliott, G. C., Cunningham, S. M., Linder, M., Colangelo, M., & Gross, M. (2005). Child physical abuse and self-perceived social isol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1663-1684.
- Evans, S. E., Davies, C. A., & DiLillo, D. K. (2008)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of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 131-140.
- Fergusson, D. M., & Lynskey, M. T. (1997). Physical punishment,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and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and Neglect*, 21, 617-630.
-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ren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21-735.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581-586.
- Kaminski, J. W., & Claussen, A. H. (2017). Evidence base update for psychosocial treatments for disruptive behavior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6, 477-499.
- Kazdin, A. E. (2005). *Parent management training: Treatment of oppositional,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 & Cicchetti, D.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maltreatment,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maladjustment: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341-354.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Cicche,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Pirooz, M. (2015). Multipl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ssertiveness and self-efficacy among female students with parents perfectionism in Shahrekord Guidance

- Schools. *Advanced Social Humanities and Management*, 2, 14-1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ousa, C., Herrenkohl, T. I., Moylan, C. A., Tajima, E. A., Kilka, J. B., Herrenkohl, R. C., & Russo, M. J. (2011).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parent-child attachmen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 111-136.
- Spinazzola, J., Ford, J. D., Zucker, M., van der Kolk, B. A., Silva, S., Smith, S. F., & Blaustein, M. (2005). Survey evaluates complex trauma exposure, outcome, and interven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 433-439.
- Straus, M. A. (2005).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In R. K. Bergen, J. L. Edleson, & C. M. Renzetti (Eds.), *Violence against women: Classic papers* (pp. 187-197).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Voegler, M. E. (200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ocial resilience in homeless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S.A.
- Yoo, Y. (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 119-151.

원고 접수일 : 2018. 12. 29

수정 원고 접수일 : 2018. 02. 15

게재 결정일 : 2018. 02. 19